

多夕 柳永模의 時調 研究*

박 규 흥**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문학사상 最多의 時調(2,254수)를 남긴 多夕 柳永模와 그의 시조를 국문학계에 최초로 알리고, 그 시조의 특징과 시조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당·춘원과 교류하며 동시대를 살았던 다석은 동서양의 사상을 두루 섭렵하고 독자적인 神觀을 수립한 위대한 종교사상가였다. 다석은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간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2,200수가 넘는 시조를 남겼다. 그의 시조의 특징과 시조사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다석은 국문학사상 최다의 시조를 지었다.

2) 그의 시조의 대부분이 그의 종교사상을 담았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인간은 약기이고, 하느님은 연주자'라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시조에는 죽음을 사모하는 자신의 뜻이 담기기 마련'이라는 時調觀에 기인한다. 자신의 시조를, 하느님이 자신을 연주하여 나오는 음악으로 여긴 것이다.

3) 다석 시조의 시어는 대부분이 심오한 의미를 담아 특이하게 구사한 우리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난해하다. 이것은 그의 사상과 학문이 자연스럽게 유로된 결과다.

다석은 우리에게 '시조는 진리를 담는 최선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시조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었다. 다석의 시조가 지금까지는 국문학사의 영역 바깥에서 방치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석 시조의 시어, 시세계, 영향관계 등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핵심어 : 다석, 오산학교, YMCA 연경반, 종교사상, 일일일생주의, 1일1석, 육당, 우리말, 최다의 시조

* 이 논문은 경일대학교 2004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일대

I. 서론

六堂 崔南善(1890-1957)과 동갑이고 春園 李光洙(1892-?)보다 2살 연장이었던 多夕 柳永模(1890-1981)는 그들과 오랫동안 교류했고 무려 2,254수¹⁾에 이르는 시조와 1,300수²⁾가 넘는 한시, 250여 수³⁾의 시를 남겼지만, 전자의 2인은 한국문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로 기억되고 있는 데 반해 다석은 한국문학사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⁴⁾ 은둔한 종교사상가였던 다석은 『青春』 『東明』 『聖書朝鮮』 등에 기고를 한 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글이 일기에 담겨져 있고, 또 문인으로 활동을 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국문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글쓴이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우선 양적으로 보더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조를 남긴 다석과 그 시조들이 계속 국문학사의 영역 바깥에서 방치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석이 국문학사상 최다의 시조를 남긴 분이란 점과 그 시조의 독특한 면모를

1) 그가 남긴 단시조와 연시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시조		1565수		연시조	6연	7개	42수
연시조	2연	170개(작품)	340수		연시조	7연	1개
	3연	56개	168수	10연		1개	10수
	4연	19개	76수	11연		1개	11수
	5연	7개	35수	전체		1826개 작품	2254수

다석 시조의 대부분이 『多夕日誌』에 수록되어 있지만, 湖巖 文一平의 수필 〈자하문〉에 다석의 시조가 한 수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다석 시조의 首數는 달라질 수도 있다.

- 2) 한시는 주로 5언과 7언으로 되어 있다. 한시는 자료를 좀 더 검토한 다음, 후고에서 다루도록 한다.
- 3) 시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후고로 미룬다.
- 4) 2004년 11월 27일 한국시조학회 제38차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필자가 이 논제로 발표를 한 것이 국문학계에서의 다석과 그의 시조에 대한 최초의 논의로 생각된다.

학계에 알려져서, 앞으로 그와 그의 시조에 대한 國文學史上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과 의의를 두고 시도되었다. 다석의 시조는 워낙 특이하여 그의 시조를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학 양식인 시조의 기능이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석의 시조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그의 생애와 사상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그의 시조의 특징과 시조사적 의미를 살피도록 한다.

II. 多夕의 생애와 사상

1. 생애

『多夕日誌』⁵⁾에 정리되어 있는 연보와 다석의 생애를 다룬 몇 권의 단행본⁶⁾을 참고하여 그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본다.

류영모는 1890년 부친 柳明根과 모친 金完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5살 때 부친으로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7-8세 때에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 11세 때 3년 과정의 水下洞 소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수학한 뒤 다시 서당에 나가 3년 동안 공부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는 1905년, 16세의 류영모는 애국지사들의 사자후를 들을 수 있었던 서울 종로에 위치한 중앙 YMCA 강당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된다. 거기서 YMCA 한국인 초대 총무인 金貞植의 인도로 기독교에

5)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다석이 남긴 일기, 그리고 비망록이나 기고문 등의 관련 자료를 영인한 책. 1990년 홍익재에서 출간하였고, 전4권으로 되어 있다.

6) 박영호, 『씨을 - 多夕 柳永模의 生涯와 思想』, 홍익재, 1985.
 _____,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하)』, 두레, 2001.

입신하여 연동교회에 나가기 시작한다. 김정식은 구한 말의 고위 무관으로, 나라의 개혁을 주창하는 독립협회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1902년 투옥되어 옥중에서 성서를 접하고 기독교에 투신한 인물로 사춘기의 다석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⁷⁾ 한편 다석은 이 해에 京城學堂에 입학하여 2년간 일어를 수학하기도 한다.

20세 때에는 경기 양평의 양평학교에 한 학기 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이듬해 南岡 李昇薰(1864-1930)의 초빙을 받아 평북 定州 五山學校 교사로 가서 2년간 봉직한다. 다석은 여기에서 春園·丹齋 申采浩(1880-1936)·是堂 呂準(1862-1932) 등을 만난다. 다석은 오산학교에 기독교를 전파하였는데, 정작 자신은 오산학교를 떠날 즈음 정통신앙에서 비정통신앙으로 돌아선다. 다석의 제자 박영호는 그런 전환의 요인을 ‘첫째는 톨스토이의 영향, 둘째는 불경이나 노자 등 다른 경전을 읽게 된 것, 셋째는 2살 아래인 아우 영목의 돌연사⁸⁾’로 들고 있다.

23세 되는 1912년에는 대학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동경 물리학교에 입학하여 10개월 정도 수학을 하였으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버린다. 학문적 능력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다석이 일본 유학생활을 포기한 것은 마치 원효가 중국 유학을 포기한 것처럼 어떤 깨달음에 기인한다. 세상의 입신양명이니 하는 것들은 집어치우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참 사는 것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⁹⁾ 26세 때에는 2살 연하의 金孝貞과 결혼한다.

28세(1917) 때에는 육당과 交友하면서 『청춘』에 여러 편의 글을 기고한다. 1918년 1월 13일부터는 자신이 산 날수 셈하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루 동안에 일생을 산다는 다석의 ‘一日一生主義’의 구체적 실

7)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 127-130쪽.

8) 박영호, 앞의 책, 199쪽.

9) 박영호, 앞의 책, 203쪽 참조.

천이었다. 다석은 아침에 잠이 깨어 눈을 뜨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잠드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하루를 소중히 보내고자 한 분이였다.

32세 때에는 古堂 曹晩植(1882-1950)의 후임으로 정주 오산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1년간 재직한다. 이때에 졸업반이었던 제자 咸錫憲(1901-1989)을 만나게 된다. 39세 때는 중앙 YMCA 간사 창주 현동완의 간청으로 YMCA 研經班 모임을 지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강의는 1963년 현동완 사망 시까지 약 35년간 이어진다.

3·1운동 48인의 한 사람으로 체포 구금되어 105일간의 옥살이를 하기도 한 부친 류명근은 1932년 별세한다. 다석은 부친의 3년상을 마친 뒤, 가산을 정리하여 23년간 꿈꿔오던 귀농을 실천한다. 다석은 동경 유학생생활을 중단하고 귀국하면서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지만 부친의 만류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탈상을 한 1935년에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52세 때 마음의 전기를 맞아 예수정신을 신앙의 기조로 하여, 解婚을 선언하고 금욕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잣나무 널판 위에서 자고 1日1食을 실천하는데, 이런 생활은 棄世하기까지 40년 동안 계속된다. 53세 때 일어난 성서조선사건(1942)으로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가서 서대문형무소에서 57일 동안 구금되기도 한다. 66세 때, 1년 뒤(1956. 4.26)에 죽는다는 사망예정일을 선언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¹⁰⁾ 1981년 2월 3일 92세로 별세한다.

다석은 근세에 성자의 삶을 산 종교사상가이다. 그의 삶이 사상이요, 그의 사상이 그의 삶이었다. 그의 시조 역시 그의 사상의 결정체이기에, 그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시조 또한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사상도 간단히 살피도록 한다.

10) 이것이 1990년 『多夕日誌』(전4권)로 영인되었는데, 다석의 유일한 저서로 남게 되었다.

2. 사상

다석 사상에 대한 연구는 종교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석의 사상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보도록 한다.

다석은 동서양의 여러 사상들을 섭렵했는데, 어느 하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상들을 소개하는 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사상을 수용하여 소화한 다음 스스로 새로운 차원의 神觀을 내놓았다.

전 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석은 YMCA 연경반에서 무려 35년간이나 강의를 했다. 거기에서 성경뿐 아니라 동서양의 여러 경전들을 다루었다. 1960년, 법학도 周揆植이 다석을 좇아 求道の 길로 들어서고자 1년 동안 강의를 들었지만 다석 신앙의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다석이 어느 종교를 신앙하는지, 다석이 언급하는 여러 종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이 물음에 다석은 “나는 신앙이 아니라면 아니지요. 말을 하자면 비교종교를 하지요. 나는 여러 종교 간의 다른 점은 찾아낼 겨를이 없어요. 여러 종교 간에는 반드시 공통되는 점이 있어요. 그 공통성을 찾아내어 인식하고 생활화하는 게 나의 인생철학이지요. 어느 종교가 제일 좋은가라고 누가 묻기에 종교는 누구나 제가 믿는 종교가 제일이지요라고 대답해 주었어요.”라고 했다고 한다.¹¹⁾ 이처럼 다석에게는 어떤 종교의 옷을 입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교의 옷이든 그 옷 속에 있는 핵심(진리, 절대적 존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생각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성경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유교 경전도 불교의 경전도 다 먹는다. 살림이 구차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빌어먹고 있다. 그래서 희랍의 것이나 인도의 것이나 다 먹고 다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11) 『多夕日誌』 제1권, 간행사.

맺감량(飽和量)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내 건강이 상한 적은 거의 없다. 여러분이 내 말을 감당할지는 모르나 참고삼아 말하는데 그리스도 교의 성경을 보나 회랍의 철학을 보나 내가 하는 말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한아님이 하여 주실 것이다.”¹²⁾

“사상에 굳이 동양·서양의 수식어를 달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사상은 다 하나(하느님, 진리)를 담아서만이 영원한 사상인 것이다. 사상이 이루어진 것은 사람들이 하나(하느님, 진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정고(未定稿)로 완결된 사상이란 없다. 인류가 남긴 모든 사상은 영원절대(하느님)에 이르려는 과정에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다.”¹³⁾

“나 류영모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애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자를 말하는 것은 공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처럼 공자처럼 간디같이 톨스토이같이 하느님의 국물을 먹고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비슷하게 그 짓하려고 말한 것뿐이다. 공자 석가 예수 간디를 추앙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나마 하느님의 국물을 먹으려는 짓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¹⁴⁾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절대자 혹은 진리를 다석은 ‘한웅님, 빈탕, 참님’ 등으로 표현하고 이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고 했다. 體의 허공, 用의 성령이 곧 하느님이므로, 허공과 성령의 하느님은 없이 계신다는 것이다. 주역도 깊이 탐구했던 다석은 태극 역시 하느님으로 연결했다.

12) 『다석어록』, 홍익재, 1993, 129쪽. 다석의 강의는 가까운 제자들의 뜻에 의해 두 차례 속기로 기록이 된다. 한 번은 1956년에서 1957년에 걸쳐 1년 간 기록되고, 한 번은 1960년에서 1961년 사이에 걸쳐 기록된다. 이 어록은 박영호에 의해 정리되어 두 번 단행본으로 출간되는데, 첫 번째 책은 1993년 『씨울의 메아리 多夕語錄/ 죽음에 생명을 절망에 희망을』이라는 긴 제목으로 홍익재에서 간행되었고, 두 번째 책은 2000년 두레출판사에서 『多夕 柳永模 어록』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兩者를 모두 『다석어록』으로 표기하고 출판사로 구별하기로 한다.

13) 『다석어록』, 두레, 83쪽.

14) 『다석어록』, 홍익재, 112쪽.

태극은 하나(전체)인 하느님이다. 무한한 공간이요 영원한 시간. 저 태양은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전체)인 하느님만 보자는 것이다.¹⁵⁾

이런 다석에게 유신론이니 무신론이니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다석에게서 시간은 공간적으로 영원 무한한 허공이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영원 무궁한 허공만이 있는데, 못별들이 나타났다면 누가 만들었겠는가? 허공이 낸 것이다. 못별들이 있다가 없어지면 누가 없었겠는가? 허공이 없앤 것이다. 그래서 허공은 만물을 내고 거두는 절대권력을 지닌 하느님이다.'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다석의 생각이었다.

허공과 성령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正體이고, 못별의 만물은 하느님의 變態이다. 변태이라서 오래 있지 못하고 정체로 돌아가기 위해 없어진다.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일 허공의 하느님뿐이라고 한다. 단일 허공의 생명인 성령이 단일 허공에 무소부재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다.

다석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얼'이고, 사람의 몸은 짐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들과 다름없이 먹고, 싸우고, 새끼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貪瞋痴(三毒)라고 하는데, 사람은 無常한 몸나의 생명에 대하여 회의하고 절망한다. 그래서 때로 자살하고 싶은 허무감에 빠진다. 그러다가 하느님의 생명인 얼(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인 얼나의 깨달음' 혹은 '영원한 생명인 얼나로 거듭나는 것'으로 다석은 설명한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의 얼이다. 사람의 몸은 짐승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들과 다름없이 먹고(feeding) 싸우고(fighting) 새끼친다(sex). 이것을 불교에서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이라고 한다. [중략] 피와 살로 된 몸은 짐승이다. 짐승인 우리가 개 돼지와 다른 것은 하느님과 교통하는 얼을 가졌다는 것밖에 없다.(1957)¹⁶⁾

15) 『다석어록』, 두레, 54쪽.

우리는 하나로 시작해서 마침내 하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또 그렇게 되어 하겠다는 강박한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강박관념은 신경증에 걸린 사람보다도 건전한 사람에게 앞선다. 대중교가, 대사가가가 믿는다는 것이나 말한다는 것은 다 하나를 구하고 믿고 말한다. 성인(聖人)이고 부처고 도(道)를 얻어 안다는 것은 다 이 하나다. 사람이란 이처럼 '하나'를 구해 마지 않게 생긴 존재다.¹⁷⁾

그래서 일어나로 솟나면 탐욕 대신에 보시를 하게 되고, 싸우는 대신에 자신을 다스리고, 자식을 낳는 대신에 금욕을 한다. 이렇게 자신의 獸性과 싸워 이기는 것이 '참사는 길'이라고 다석은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실천했다.

Ⅲ. 多夕의 시조

1. 다석의 時調觀

다석은 1917년 6월 23일자로 발행된 『청춘』지에 〈無限大〉라는 가사를 실었다. 이것으로 그가 일찍부터 우리 시가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 그때 시조도 지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석 최초의 시조는 1939년 『성서조선』에 실은 〈自感(一生鮮)〉이라는 4수의 연시조다.

한 머리면 몇토막에 한토막은 몇점인가
하루하루 점여내니 어니덧 끝점하루

16) 『다석어록』, 두레, 57쪽.

17) 『다석어록』, 홍익재, 167쪽.

하루는 죽는날인데 萬년壽만 녀이네

맛없어도 머리토막 찍어내어 없이했고
世間살이 한답시고 간대토막 녹았으니
남께는 무얼بات이나 꼬릴잡고 뉘웃네

국거리는 못되어도 찌게라도 하시려니
찌게감도 채못되면 고명에는 씨울거니
성기만 하울것이면 남께드려 보고져

五十구빌 도라드니 큰토막은 다졌고나
人間的 도마우에선 쓸데없는 찌꺼기나
남께서 별너주시면 배부르게 五千人!¹⁸⁾

자신의 일생을 한 마리의 생선에 비유한 이 연시조는 『성서조선』 독자들의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면에 발표된 시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기에 적은 것들이다. 다석이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1년 뒤에 자신이 죽는다는 사망가정일을 선언한 1955년 4월 26일부터였다. 1974년까지 20년간 다석은 2,200수가 넘는 시조를 일기에 남긴다.

우리말을 남다르게 해석하고 거기에다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던 다석은 보통 사람들은 읽기조차 어려운 고어 형태¹⁹⁾의 시어를 구사했다. 일기에 적힌 시조들의 대부분은 위에서 예시한 <자감>보다도 이해하기가 훨씬 어렵다. 언뜻 봐서는 그것이 시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호가 등장하기도 한다. 시조란 것을 알고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시조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과

18) 『多夕日誌』 제4권, 576쪽.

19) 옛 표기를 충실히 따랐다가보다는 다석이 독자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어 형태'라고 했다.

는 이질적인 시조를 지었다. 다석 자신도 이러한 점을 의식했음인지 시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그가 자신의 시조에 대해 한 언급이다.

“나는 여러 말을 시조형으로 글자를 묶어보았는데 누가 보면 시조(時調)가 아니라 할지 모르나 나는 나대로 시조가 될 수 있다. 내 몸을 갖다가 운(韻)으로 하고 조금 느낌을 통하게 하여 이러한 시가 되었다.”²⁰⁾

누가 어떻게 평하든 자신은 시조를 쓴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써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 2,200수가 넘는, 국문학사상 최다의 시조가 지어지는 데는 시조에 대한 그만한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多夕日誌』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한시, 시, 시조가 혼재되어 있는데, 차츰 시조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과 위의 언급을 통하여, 다석이 우리의 고유한 문학 양식인 시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류영모는 사람의 몸은 악기(樂器)라고 말하였다. 옛날에는 음악을 율려(律呂)라고 하였는데, 여(呂)자가 바로 등뼈를 그린 글자라고 하였다.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조율(調律)이 되어 있어야 하듯이 사람의 몸은 조절(調節)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느님께서 타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²¹⁾는 증언을 감안하면, 다석은 자신의 시조를 ‘하느님이 자신을 연주해서 내는 음악’으로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니까 “내 몸을 갖다가 운(韻)으로 하고 조금 느낌을 통하게 하여 이러한 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몸으로 ‘律呂調陽’한 결정체가 ‘시조’라고 여겼을 거라는 것이다. 그래서 20

20) 『다석어록』, 홍익재, 242쪽.

21)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하)』, 40쪽.

년을 꾸준히 자신의 종교사상을 담은 시조를 지었다.

2,254수에 이르는 시조 중에서 경치를 읊은 것이 2수, 인물에 대한 것이 8수, 어떤 사건을 시조로 읊은 것이 15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진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읊은 것임을 보더라도 다석의 시조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시조에 대한 다석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편의 漢詩도 있다. 다석은 洪一植이 쓴 「六堂研究」에서 ‘육당의 시조는 병자의 신음과 같다’는 홍일식의 평을 읽고는, “시대는 병환 깊은 시대요, 육당(六堂)은 선명(善鳴)이다. 물론 병자의 신음이었어야겠지. 신음이 무요(無要)하면 시조는 무용(無用)이리. 각설코 육당이 병자 신음만 하였다면 다석(多夕)은 망자(亡者)의 귀곡(鬼哭) 같달 것이다”고 하면서 다음의 한시를 지었다고 한다.²²⁾

六堂 時調 呻吟說

六堂病者呻吟音	육당의 시가 앓는 이의 앓는 소리라면
多夕亡者鬼哭陰	다석의 시는 망 속 귀신의 울음소리라
若到無用時調日	만일에 시조가 쓸데없는 날에 이르면
可能不要聞呻吟	앓는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박영호 새김)

다석은 젊은 시절에 만난 육당과 오랫동안 교류했다. 광복 후 육당이 친일 문제로 괴로운 처지가 되었을 때도 다석은 육당을 외면하지 않았다. 육당의 병문안을 하고, 육당이 죽자 〈六堂에 떠러진 쓰림〉²³⁾이라는

22)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 246쪽.

23) 六堂에 떠러진 쓰림

아·언니의 이네부린·지고·지련·무거운 짐.
아·언니의 보인결음·예고·예련·멀적 열길.
이 날로 옹호이심이 한참근치 시넛가.

낮은 녀의 굶은 짐도 「우리 저안다」 시더니

애도의 시조를 짓기도 했다.

육당에 대한 다석의 이런 태도로 봐서, 홍일식의 평에 대한 다석의 반응에는 육당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일화와 〈육당 시조 신음설〉에서 다석은 시조란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병환 깊은 시대에 시조는 병자의 신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늘 죽음을 사모하여 사망예정일을 선언하고, 하루를 평생처럼 산 일일일생주의자 다석 자신의 시조에는 ‘죽음에 대한 예찬’이 담겨 사람들에게는 ‘귀신의 울음’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비록 당장에는 죽지 않더라도 죽을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산 류영모는 호까지도 ‘많이 보낸 저녁’ 즉 ‘多夕’으로 지었다. 이런 다석은 시조가 자신의 사상을 담아내는 가장 적절한 그릇으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2,200수가 넘는 시조와 시조에 대한 언급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2. 다석 시조의 특징과 時調史的 의미

다석이 남긴 시조는 그 양으로도 엄청나지만, 그 독특함으로도 시조 문학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다석 시조의 몇 가지 특징은 ‘매우 난해함’으로 표출된다. 사실 다석에 대한 별도의 공부가 없다면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²⁴⁾ 다석이 난해함을 의도한 것은 물

높은 데에 별흰 힘도 내참내찾아 가신가
 붉비에 바탈 트셨고 마침내는 한 얼김.

언니제엔 가장 쉬운 아우로나 대오릿가.
 아우로선 이끌림 펴으나도 많답니다.
 이·아우 김부릴 참엘 어지간히 뉘시오.
 (『多夕日誌』 1957.10.12)

른 아니다. 그의 사상과 학문이 자연스럽게 유로된 결과일 따름이다. 본고에서는 다석 사상의 結晶體이기도 한 그의 시조의 특징을 몇 가지로 짚어 본다.

다석은 어릴 때부터 한학을 공부하여 詩想도 한시로 떠오른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한시도 1,300수가 넘게 남겼다. 뿐만 아니라 『中庸』과 노자의 『道德經』을 완역하기도 하고 여러 경전의 주요 부분을 번역하기도 했다. YMCA 연경반에서는 『周易』이나 퇴계의 「聖學十圖」까지도 강의의 자료로 삼았다.

이처럼 한학에 깊은 조예를 지녔던 다석이었지만, 우리말도 깊이 탐구하여 우리말의 의미를 독특하게 해석하고 사용했다. 대표적인 단어가 '씨울'이다. 다석은 '民'을 '씨울'로 표현했는데, 제자 함석헌이 즐겨 사용한 덕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곧다(貞)는 것을 '고디'로 표현하기도 했다. "참님(하느님)에 대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 고디"²⁵⁾라는 것이다. 貪瞋癡의 三毒에 얽매어 사는 육신의 자아를 '제나', 깨달음으로 거듭난 정신적 자아를 '얼나'로 부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우리말의 지닌 의미의 꼬투리를 찾아내어 독자적으로 표현한 많은 말들이 있다. 앞으로 따로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말 동사의 어간 부분만으로 명사형처럼 사용한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다음은 한자를 그렇게 우리말로 옮긴 예이다.²⁶⁾

한자	識	視	聽	嗅	食	接	苦	集	減	受	想	行
한글	알	봐	듣	맡	먹	맨지	쓴	묻	끄	받	곰	가

24) 다석의 제자 박영호가 다석의 시조 99수를 풀이한 책 『多夕 柳永模의 얼의 노래』(두레, 2004)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논문을 쓸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25) 박영호, 『多夕 柳永模의 얼의 노래』, 두레, 2004, 19쪽.

26) 『다석일지』 제2권, 70-72쪽.

이외에도 다석은 많은 우리말을 독특하게 구사했다. 물론 우리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또 다석은 부호를 많이 사용했다. <씨>라는 제목의 연시조를 예로 든다.

씨

하늘·따·나·----나라니 나니---- 잘문과 나는 하나
 이미 하나 돼! 또 뭐? 말! 하나됐으니. 었? 말! 없?
 하나라 말이 둘 되고 둘과 하나 셋이 됨. (2-1)

이러케 간다면 책역을 낸 이도 못 얻을 데!
 없서 있 가다 셋 된데, 하물며 있서 있 가단?
 갈 데가 어디라 찾나? ㄱ 끝 씩가 할 다름. (2-2) (1962.4.6)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중간 느낌표와 물음표는 물론 중간에 방점을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ㄱ²⁷⁾와 같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글자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시조는 『莊子』의 구절²⁸⁾을 자신이 소화하여 시조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표면적인 개체를 헤아리다

27) ㄱ은 이'라고 발음했다고 한다. 다석은 광복 전부터 '자신은 막대기 철학을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막대기(ㄱ)는 '나'를 가리키고 '사람'을 가리키는 세계 공통어(영어도 '나'는 'I')로, 하늘의 씨의 줄이 자신에게로 내려와서 아래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박영호의 증언)

28) 天地與我并生 하늘 땅이 나와 함께 났으니/ 萬物與我爲一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
 既已爲一矣 이미 하나 되었다면/ 且得有言乎 또 아무런 말이 있으랴
 既已謂之一矣 이미 하나라 일렀으니/ 且得無言乎 또 아무런 말이 없으랴
 一與言爲二 하나와 더불어는 말로 둘이 된다./ 二與一爲三 둘과 더불어는 하나로 셋이 된다.
 自此以往 이를 좇아서 가면/ 巧歷不能得 曆算을 잘하는 이도 수를 알 수 없다.
 而況其凡乎 그런데 하물며 여느 사람이랴
 故自無適有以至於三 그러므로 없음에서부터 있음에 가는 데도 셋에 이르는데
 而況自有適有乎 그런데 하물며 있음에서부터 있음에 가는 데랴
 無適焉 (상대세계로) 갈 것 없다/ 因是已 이(절대인 無)로 말미암을 뿐이다.
 (朴永浩 譯著, 『莊子 - 다석 류영모의 사상과 함께 읽은 장자』, 두레, 1998, 106-107쪽).

보면 한이 없다는 것이다. 추구해야 할 것은 절대자 곧 하느님으로부터 내 마음 속에 내린 『』 곧 '씨'라는 것이다. 시어가 이러하니 독자는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석으로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응축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다석은 시조가 善鳴에게는 시대의 아픔을 담는 그릇으로, 자신에게는 자신을 통해 나오는 음악이요 자신의 종교사상을 담는 그릇으로 여겼던 듯하다. 그러니 戲作이란 있을 수가 없다. 글자 한 자 한 자, 부호 하나 하나에 자신의 사상을 담았고, 그렇게 지어진 시조는 자신의 행동철학의 선언이기도 했다.

다석이 젊은 시절 톨스토이의 영향을 크게 입은 것은 분명하다. YMCA 研經班 모임을 지도하기 시작한 첫 해(1928)의 교재로 쓴 작은 수첩에 톨스토이의 生活十戒²⁹⁾가 적혀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다석은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땀흘려 일해서 먹어야 하고, 자신의 배설물은 자신이 치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귀농한 것도 땀 흘려 일해서 먹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시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땅과 땀은 밥맛 내기로 바뵈

입맛없고 진땀내른 모르기론 땅패기론.
무슨생각 올바르게? 말은언지? 일은무슨?
우리는 땅파물먹고 땀맛밥힘으로요 (1957.9.6.)

-
- 29) 1. 밤이나 낮이나 신선한 대기 속에 살 것 2. 매일 실외에서 운동할 것
3. 음식을 절제할 것 4. 냉수욕 할 것
5. 넓고 가벼운 옷을 입을 것 6. 청결에 힘쓸 것
7. 규율에 맞추어 일할 것 8. 밤에는 반드시 푹 잘 것
9. 이웃에 착한 마음을 쓸 것 10. 별 잘드는 넓은 집에 살 것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 두레, 2001, 328쪽).

입맛을 잃고 진땀을 흘리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땅을 파서 일을 해야 '땀맛 밥힘'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이다. 다석은 이 시조처럼 실제 그렇게 실천했다. 다석의 대부분의 시조들은 자신의 사상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실천의 선언이기도 했다.

이상의 논의만으로도 다석의 시조가 시조문학사상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2,254수에 이르는 작품수가 독보적이다. 이제까지 최다작의 작가로 알려진 이세보의 시조보다도 무려 5배 가까이에 이른다. 그리고 그의 시세계가 그의 종교사상만큼이나 특이하다. 시조문학 양식을 그의 독자적인 종교사상을 담는 그릇으로 꾸준히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그리고 심오한 함의의 우리말을 시어로 구사하였다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런 다석의 시조를 시조를 또 다른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혹자는 문학성의 유무를 가지고 시비를 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조의 기능은 다양해서 문학성을 따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석은 그의 시조를 통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문학 양식인 시조가 오묘한 신앙의 진리를 담아내는 훌륭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퇴계가 <陶山十二曲>에 '배움'과 '뜻'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등 '載道之器'로서의 기능을 보인 몇몇 작품들이 있지만, 다석의 시조를 보면 그 정도는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다석이 이렇게 시조를 짓게 되었을까? 다석이 육당·춘원과 일찍부터 교유했음은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다. 1920년대 시조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육당, 1921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귀국한 후 신문에 연재한 <金剛山遊記>의 중간 중간에 120수에 이르는 시조를 읊었던 춘원, 그리고 이들의 畏友였던 다석이 이후 2,200수가 넘는 시조를 남겼다는 사실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로의 영향 관계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육당이 주도한 시조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시조가 근대의 시형태로 거듭난 이후, 육당과 춘원을 가까이서 교유하던 종교사상가 다석이 20여 년 동안 국문학사상 최다의 시조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양의 사상을 섭렵하여 이룬 자신의 종교사상을 심오한 함의의 우리말 시어로 시조시형에 담았다는 것이다. 다석은 시조문학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이제부터라도 시조문학사는 다석 류영모와 그의 시조를 기억해야 한다.

IV. 결론

본고는 육당·춘원과 교유했고, 국문학사상 최다의 시조를 남겼으면 서도 이제까지 한 번도 국문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없는 다석 류영모의 시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시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의 생애와 사상을 살핀 다음, 그가 지녔던 시조에 대한 인식과 그의 시조의 특징, 그리고 시조문학사적 의미를 살폈다. 논의한 것을 간추려 결론으로 삼는다.

다석은 근세 우리 나라가 낳은 위대한 종교사상가요 성인의 삶을 산 분이였다. 그는 동서양의 사상을 두루 섭렵하여 소화한 다음 독자적인 神觀을 수립했다. 다석은 시간 공간적으로 무한한 허공이 하느님이라고 했다. 영원한 생명은 이 하느님의 열이고, 사람의 몸은 짐승이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獸性과 싸워 이기는 것이 ‘참 사는 길’이라고 하고, 그렇게 실천했다.

다석은 하루 하루를 세며, 하루를 평생처럼 사는 ‘一日一生主義’로 일생을 살았다. 52세부터는 해혼을 선언하고 금욕생활에 들어가서, 1일 1

식과 잣나무 널판 위에서 기거하는 생활을 기세하기까지 40년간 계속했다. 사망예정일을 선언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간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2,200수가 넘는 시조를 남겼다.

다석이 남긴 2,254수의 시조는, 우선 작품수만으로도 독보적이다.

그의 시조는 매우 특이한데, 다석 자신은 시조에 대한 분명한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석은 사람의 몸은 악기라고 하고, 사람의 몸은 조절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느님께서 타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져다 韻으로 하고 거기에 느낌(의미)를 통하게 한 것이 시조라는 것이다. 육당과 같은 善鳴에게 시조는 시대의 아픔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철학을 담는 그릇이 될 있다는 의미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년 이상 꾸준히 자신의 종교사상을 시조양식에 담았다. 고시조 중 載道의 器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몇몇 작품들이 있지만, 다석에 와서 시조가 진리를 담는 최고의 그릇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석의 시조는 특이한 만큼 해독 또한 매우 어렵다. 다석은 한문에 조예가 깊은 분이였지만, 우리말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천착했다. 그래서 '民'을 '씨울', '貞'을 '고디'로 부르는 등 우리말을 독특하게 사용했다. 동사의 어간만을 명사형처럼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다석 시조의 대부분이 이런 시어들로 되어 있다. 자연히 난해하고 독특한 시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조문학사상 최다인 다석의 시조, 우리말에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아 특이하게 구사한 詩語, 시조문학 양식을 그의 독자적인 종교사상을 담는 그릇으로 꾸준히 사용한 다석, 이 모두 시조문학사에서 새롭게 조명할 문제들이 아닐 수 없다. 다석의 시조는 시조문학의 또 다른 경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시조부흥운동을 주도한 육당과 그 시기 세련된 시조를 적잖이 남긴

춘원, 그리고 이들과 오래 교류했던 다석이 20여 년간 최다의 시조를 남긴 것이 결코 영향관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까지 밝히는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말씀과 자료를 주신 박영호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多夕日誌』(1-4권), 弘益齋, 1990.
류영모 말씀, 박영호 엮음, 『多夕語錄』, 홍익재, 1993.
류영모 지음, 박영호 풀이, 『多夕 柳永模의 얼의 노래』, 두레, 2004, 박영호, 『진리의 사람 다석 류영모』(상·하), 두레, 2001.
_____, 『씨을 -多夕 柳永模의 生涯와 思想』, 弘益齋, 1985.
_____, 『莊子 -다석 류영모의 사상과 함께 읽는 장자』, 두레, 1998.
이광수, 『金剛山遊記多』, 실천문학사, 1998.
이정배, 『한국 개신교 전위(前衛) 토착신학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Sijo of Da-seuck Ryu Yeung-mo

Park Kyu-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Da-seuck(多夕) and his Sijo those were never introduced to the academic world of Korean literature yet.

Daseuck who kept company with Yook-dang(六堂) and Chun-won(春園) was a great philosopher of religion. He had ranged over world wide philosophy and founded his own angle of view to God. He had written diary in which many Sijo Poems more than 2,200 were written for 20 years from 1955 to 1974. The special features of his Sijo and the historical meanings are:

First, Daseuck had written the most numerous Sijo Poems in number.

Second, one of the special features of his Sijo is that most of his Sijo Poems contains his own ideas of God that is caused by his religious belief and his angle of view to Sijo.

Third, his poetic words are too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he had used Korean old language that he understand them peculiarly.

Keywords : Da-seuck, O-san School, YMCA Bible Study Class, philosopher of religion, one day one meal, Yook-dang, Korean old language, the most numerous Sijo Poems in number